



아이젠 '의료기기 인증 비데'

치질치료 돕는 '관장 비데' 30개국 수출 뚫었다

2002년 치질을 앓고 있던 유병기 대표는 관장 기능이 있는 특수 비데를 우연히 선물받았다. 아이젠이라는 신생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 관장 비데였다. 관장 기능을 몇 달간 사용했더니 항문 질환이 좋아졌다. 제품에 매료된 유 대표는 의식업을 접고 2003년 아이젠을 인수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온수·온풍·탈취 기능 등을 탑재하며 제품을 다듬어 2004년 정식으로 출시했다. 2009년 국내 비데로는 처음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고, 관장 기능을 조금씩 보완하며 기능을 꾸준히 향상했다. 지금까지 40만대 넘게 팔린 히트상품이 됐다.

◆'관장용' 노즐이 하나 더

비데 대부분은 노즐이 비데용과 세정용 두 개다. 하지만 아이젠의 제품은 관장 기능을 하는 노즐이 하나 더 있다. 관장 버튼을 누르면 종이컵 1개 분량의 물줄기가 항문 안쪽 3~5cm 부분까지 닿는다. 변을 묽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배출돼 관장이 되게 하는 원리다. 관장 기능과 관련한 국내 특허만 13건을 취득했다.

유 대표는 "수입이 센 물줄기를 항문 깊숙하게 쏘야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었다"며 "너무(불규칙한 흐름)를 증류

(규격적인 흐름)로 바꾸는 원리기술을 자체 개발해 이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반응이 좋자 좌욕 기능이 있는 비데, 쾌변 기능을 탑재한 비데 등 응용제품도 선보였다.

◆자체 브랜드로 수출
아이젠은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고급화 및 자체 브랜드 전략을 고수한다. 제품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다. 관장 비데의 가격은 40만~50만원대로 일반 비데보다 2~3

수업조절 등 특허만 13개 약국·면세점 등서 판매

입소문에 올 매출 300억 기대 노년층 겨냥 'IoT 비데' 개발

배 비싸다. 판로도 적극적으로 개척했다. 지난해 비데업계 최초로 약국 판매를 시작했다. 면세점에도 도입했다. LG전자 베스트샵을 비롯해 전자랜드 등 양판점과 백화점에서도 판매한다.

해의 공과도 속도를 내고 있다. 30여개국에 아이젠 브랜드를 다량 수출한다.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유병기 아이젠 대표가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비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에 지사를 설립했다. 수출 비중은 35% 정도다. 2013년엔 무역의 날 500만달러 수출상을 받았다. 유 대표는 "중국에서 120만원에 달하는 고가 모델도 잘 팔린다"며 "독일 유통체인 홈바흐의 130여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등 유럽에서도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이 회사의 예상 매출은 300억원이다. ◆탄탄한 ODM·소형가전 확대 대립바스, 게임요업 등 주요 위생 등 대표는 "중국업체 등 주요 위생 등 생활가전업체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일반 비데를 공급하고 있다. 매출에서 ODM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물량이 점점 늘어나자 2년 전 월 3

◆'아이디어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아이디어 으뜸중기 제품 △아이젠-국내 의료기기 인증 관장 비데 (02)581-1067 △브링유-7초 워터차 안전 삼각대 PULLI (031)506-8689 △시비비비비-수유등 루나스퀘어2 (02)717-9901 △엔퓨텍-외주선 살균기 퓨라이트 (031)744-4549

만대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경기 김포에 갖췄다. 요즘엔 노년층을 겨냥한 비데를 개발하고 있다. 유 대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비데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면서 "시제품을 선보고 령진와중합체연구소에 설치해 시험 중"이라고 말했다.

비데뿐만 아니라 소형 제품을 소형가전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는 "관장 비데처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더한 제품을 꾸준히 내놓겠다"고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e@hankyung.com

노루페인트, 하남 스타필드에 체험 매장

노루페인트가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하남에 '컬러 스튜디오'(사진)를 열었다. 컬러 컨설팅부터 페인트 시공 서비스 및 부자재 판매까지 색상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체험형 공간이다.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인력인 컬러매니저가 소비자에게 1대 1로 색상 상담과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흡수성 상품으로 출시해 인기



노루페인트 컬러 스튜디오 디자인 하우스 원스톱 시공상품도 상담 받을 수 있다. 2100여 가지의 다양한 색상을 즉석에서 만들어 주는 조색 서비스가 장점이다.

KCC 'VR 쇼룸' 오픈

KCC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인테리어는 가상현실(VR) 쇼룸 오픈에 맞춰 체험 이벤트를 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홈씨씨인테리어의 VR 쇼룸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실제 거주공간처럼 재현한 모델하우스 형태의 쇼룸에 VR 기술을 적용한 공간이다. 홈씨씨인테리어 홈페이지와 모바일(www.homecc.co.kr) 사이트 내에서 '360도 VR 쇼룸' 메뉴를 클릭하면 즉시 체험할 수 있다.

부업으로 들어온 이케아... 주방용품 700종 출시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
냄비·조리기구 등 첫선
집밥 체험 공간도 마련

이케아가 주방용품을 국내에 새롭게 내놨다. 냄비, 프라이팬 등 조리 도구부터 식품보관 용기, 식기 등까지 700여종에 달한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사진)는 "앞으로 1년 동안 주방 공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케아는 22일 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함께해요, 맛있는 시간'이란 새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케



가 주방을 타겟으로 정한 것은 다른 공간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케아는 국내 가정집 수백 곳을 방문해 요리하는 방식과 식자 방법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가구의 절반 이상(약 57%)이 매일 요리할 정도로 주방 활용도가 높았다. 반면 주방을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답한 사람은 6%에 불과하다는 데 주목했다. "주방에 모여 함께 요리를 만들고, 먹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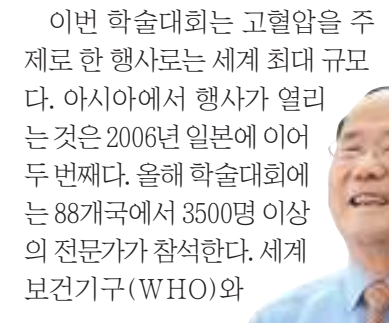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면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이 났다. 첫 출발은 주방용품이었다. 그동안 국내에선 팔지 않았던 식기류, 냄비 등 주방용품을 이달부터 선보이기 시작했다.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에 '헤이 집밥'이란 체험 공간도 열었다. 이케아는 실적으로 공개했다. 슈미트갈 대표는 "지난 회계연도(2015년 9월~2016년 8월)에 345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밝혔다. 올 들어 1~8월 매출증가율은 약 17%로 작년 전체 매출증가율(7.1%)보다 크게 높았다. 안재경 기자 ahnik@hankyung.com

김승호 회장의 절치부심 6년 '고혈압 올림픽' 주인공 된 카나브

서울 행사 메인 후원사로 나서 판매 앞둔 신약 임상결과 발표

김승호 보령 제약 회장(사진)은 2010년 세계고혈압학회 학술대회이 열린 캐나다 밴쿠버를 찾았다. '고혈압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학술대회에서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후 김 회장은 2년마다 열린 학술대회에 어김없이 참석했다. 카나브의 시장은 해외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술대회 기간 김 회장의 눈길을 끈 것은 화이자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였다. 대형 홍보 부스를 차리고 새 약의 임상 결과를 세계 의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카나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보령 제약은 오는 24~29일 서울 삼삼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고혈압학회 학술대회의 메인 스폰서를 맡았다. 국내 제약사가 세계적 의학계 학술대회의 메인 스폰서를 맡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혈압을 주제로 한 행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아시아에서 행사가 열리는 것은 2006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88개국에서 35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함께 서울선언도 발표한다. 고혈압을 잘 관리해 2025년까지 심혈관 질환 사망을 25%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호 대한조직위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은 "토종 신약을 홍보하는 기회가 생겨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보령 제약은 학술대회 기간에 총 5개의 심포지엄을 연다. 이를 통해 카나브와 고혈압 복합치료제인 듀카브, 오는 11월 발매할 투베로 등의 임상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총 3개 고혈압 관련 제약사와 기관 등이 180여개 전시부스를 차리는데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부스도 주었다. 국내 제약업계 화두는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의 관심은 연구개발(R&D) 역량을 늘려 신약을 개발해 데 집중했다. 제약업계에 명령제약의 이번 메인 스폰서 참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의 마케팅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나브 등 고혈압 신약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나브는 세계 여덟 번째 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계열 고혈압약이다. 개발단계부터 세계 무대를 겨냥했다. 보령 제약은 연례 러시아, 페루 등에도 카나브를 출시 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김승호 보령 제약 회장 인터뷰 모습. bluesky@hankyung.com

실험동물 자원은행 생긴다

의약품 개발에 쓴 생체조직 다른 연구에 재활용 지원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실험동물의 생체조직을 다른 연구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실험동물 자원은행'이 대구에 설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 자원은행 구축 사업의 첫 단계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융합단지 내에 실험동물 자원은행을 설립하기로 하고 22일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 생체조직이란 실험동물의 장기, 혈액, 동물유래 줄기세포 등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실험동물 자원은행은 △실험동물 생체조직의 수집·보존 △생체조직 보관 시설·실험기구 구축·운영 △극산 실험동물 모체 자원 및 질환모델동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지역별 거점 실험동물 자원은행을 올해 1곳에서 2020년까지 5곳으로 늘려 매년 약 10만개의 생체조직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학 실험실, 민간 연구소 등에서 산업폐기물로 처리되던 실험동물의 생체조직도 수집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조민희 기자 mwis@hankyung.com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구분	소재지	지번	작목 및 건물상태	면적(㎡)
토지	경기도 양주시 서원동 송정리	88	관공장지	5,076
		87-3	관공장지	2,089
		152-1	관공장지	5,081
건물	경기도 양주시 서원동 송정리	153-2	공공창고지	2,349
		173-2	도로	912
		173-2	도로	1,302.9

1. 용역대상부동산(경기도 양주시 서원동 송정리 공영)

2. 공매 관련 사항

일시	최소	최저입찰금액	시간	비고	개찰 일시
2016.10.04	2회	7,000,000,000	09:00~12:00	입찰금액의 120% 이상	2016.10.05(화) 10:00
2016.10.05	3회	5,670,000,000	09:00~12:00	-	2016.10.07(목) 10:00
2016.10.10	5회	4,590,000,000	09:00~12:00	-	2016.10.11(금) 10:00
2016.10.12	6회	4,134,000,000	09:00~12:00	-	2016.10.13(토) 10:00

보상계획결정정공고

1. 공익사업의 개요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3. (주)새서울레저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5. 기타 사항

버킷리스트

주식의 매력에 이젠 떠난 주권자를 영의 공교로

마시멜로 테스트

15년이 50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일터 미션 체험 | 안전한 몸집 | 15,000원